

한국양궁 세계선수권 단체전 금메달 '씩씩이'

혼성 6연패·남녀단체 우승
안산·김우진 각각 '2관왕'
12년만 전통목 석권 도전

한국 리커브 양궁이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 금메달을 싹쓸이했다.
안산(광주여대)과 김우진(정주시청)은 지난 25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양크턴에서 열린 대회 5일째 대회 혼성 단체전(혼성전) 결승에서 러시아의 옐레나 오시포바-갈산 바자르자포프 조를 6-0(38-36 39-36 37-33)으로 완파했다.
앞서 결승이 열린 남녀 단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한 한국은 혼성전 결승에서도 이겨 이 대회 단체전에 걸린 3개의 금메달을 모두 싹쓸이했다.
한국은 세계선수권에서 혼성전이 도입된 2011년 대회 이후 이번까지 6개 대회의 혼성전 금메달을 다 가져왔다.
안산과 김우진은 남은 개인전에서 3관왕에 도전한다.

약 2달 전 일본 도쿄에서 사상 첫 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올랐던 안산은 2개 메이저 대회 연속으로 3관왕에 등극할 기회를 잡았다.
만약 안산과 김우진이 개인전 금메달까지 모두 가져온다면, 한국 양궁은 2009년 울산 대회 이후 12년 만에 세계선수권 리커브 전통목 석권의 위업을 이룬다.
앞서 1997년 빅토리아(캐나다) 대회와 2005년 마드리드(스페인) 대회, 2009년 대회에서 한국 양궁은 총 3차례 전통목 석권을 해낸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양궁 평준화가 가속화한 2010년대부터 '최강' 한국 양궁에도 세계선수권 전통목 석권은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졌다.
특히 2019년 스페르토벤보스 대회에서 혼성전 금메달 1개에 그쳤던 한국 양궁은 이번 대회에서 최소 3개의 금메달을 확보하며 자존심을 회복했다.
안산과 강재영(현대모비스), 장민희(인천대)로 이뤄진 여자 대표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멕시코를 5-3(53-54 55-54 55-53 56-56)으로 제압했다.
한국 여자 양궁은 2017년 멕시코시티 대회 이후 4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한국 남자양궁대표팀(사진 왼쪽·오진혁, 김우진, 김제덕)과 여자양궁대표팀(안산, 장민희, 강재영)이 지난 25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양크턴에서 열린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안산은 경기 뒤 대한양궁협회를 통해 "생각보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는데, 언니들이 좋은 점수를 기록해줬다.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올 때도 언니들이 잘 다독여줘서 이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재영은 "산이가 첫발 10점을 쏠 것이라고 믿었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었다"고 돌이키면서 "하지만 (산이가) 10점을 쏠 수 있다고 계속 믿었다.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이러 "우리 셋 다 올림픽 첫 출전이었는데, 이 멤버로 같이 세계선수권 단체전까지 우승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며 웃었다.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는 김우진과 오진혁(현대제철), 김제덕(경북일고)이 미국을 6-0(54-53 56-55 57-54)으로 완파했다.
남자 양궁이 세계선수권 단체전 금메달을 따낸 것은 2015년 코펜하겐(덴마크) 대회 이후 6년 만이다.
개인전에서 16강 탈락해 그랜드슬램 달성에

실패한 오진혁은 개인 통산 5번째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거머쥐며 아쉬움을 달랠다.
개인전 금메달 주인공은 26일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치러 가린다.
여자 개인전에서는 안산과 장민희가, 남자에서는 김우진과 김제덕이 도전한다.
한편, 컴파운드 양궁 혼성전 동메달결정전에서 김종호(현대제철)와 김윤희(현대모비스)가 덴마크에 152-148로 이겨 동메달을 따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정규시즌 내달 30일 종료

우천순연 포함 잔여 81경기 편성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10월 30일 끝난다.
KBO 사무국은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정규리그 잔여 경기 일정을 26일 발표했다.
잔여 경기는 미편성됐던 5경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우천순연 경기 등을 포함해 재편성이 필요한 76경기 등 총 81경기다.
10월 9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이들 잔여 경기를 소화할 예정이다. KBO 사무국은 먼저 26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비 등으로 경기가 취소되면 시행 세칙에 따른 경기 일로 우선 편성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10월 9일 이후의 예비일 ▲추후 편성 순으로 재편성하기로 했다. 또 10월 9일 이후 취소된 경기는 다음 날 대진에 따라 재편성 방식이 달라진다. 다음 날 같은 대진이면 더블헤더로 편성된다. 동일 대진이 아니면 ① 발표된 일정의 예비일 ② 동일 대진 두 번째 날 더블헤더 ③ 동일 대진 싱글 경기 더블헤더 ④ 추후 편성 순으로 다시 편성된다.
예비일 경기와 더블헤더를 편성할 때 팀의 연전은 최대 9연전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공휴일인 10월 9일 한글날의 경기 시간은 8월이 이동일임을 고려해 오후 5시로 변경했다. 대체 공휴일인 10월 4일과 11일에 편성되는 경기는 오후 2시에 시작한다.
KBO 사무국은 우선 등으로 연기되는 경기가 포스트시즌 각 시리즈와 관계없는 대진일 경우에는 정규시즌 최종일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개막일 사이의 이동일 또는 포스트시즌 기간에도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배드민턴 국가대표 후보선수 비대면 훈련

광주·전남 선수 9명 포함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의 안전 관리 및 훈련 효율성 강화를 위해 비대면 훈련에 나섰다.
26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의 23-29일 하계훈련을 비대면으로 결정, 각자의 자택 및 소속팀에서 철저한 방역 하에 다양한 기술 훈련과 소양교육을 진행 중이다.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은 총 60명(남자 30명 여자 30명)이며 지도는 전임지도자인 고영구 전대사대부고 감독을 포함해 이주용(당진정보고), 김명현(화순고), 정웅(김천생명고), 조정호(인천해양고), 김병완(매원고) 지도자가 전담지도를 맡았다.
선수단에는 광주·전남 선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전대사대부고 안운성(3년)과 조승현(2년)을 비롯해 광주체고 김예리(2년), 화순고 정은지, 이재은(이상 3년), 정다연, 공여진(이상 2년), 전남기술과학고 정민재(2년), 박성주(1년) 등 남자 4명, 여자 5명 총 9명이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하계훈련을 하고 있다.
선수단은 온라인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부여된 일별 훈련 목표를 확인하고 해당 영상을 촬영한 후 지도자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기술 훈련을 수행한다.
고영구 전임감독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 대면으로 훈련을 실시,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광주FC 3연패 '수령' ...울산에 0-1 패

제주전 0-3 몰수패 정정



광주FC는 지난 25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3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광주는 후반 4분 이동준에 결승골을 내주면서 무릎을 꿇었다. 30라운드 제주전 결과가 '선수교체 횟수 추가'로 몰수패가 되는 악재를 겪은 광주는 3연패를 당해 11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골키퍼 윤평국이 전복전 실수를 만회하는 맹활약을 펼쳤으나 광주는 끝내 선두 울산의 벽을 넘지 못했다. 광주는 전반 19분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이동준이 때린 원발슛이 광주

골키퍼 윤평국에 막혀 실점 위기를 넘겼다.
전반 35분 페널티지역 상황에서는 이동준의 슈팅이 골키퍼 윤평국의 원발 끝에 걸렸다. 하지만 후반 4분 이동준에게 끝내 골문이 열렸다. 후반 4분 설영우가 오른쪽 측면에서 투입한 크로스를 이동준이 골 지역 오른쪽에서 헤더로 광주 골대 왼쪽 구석에 볼을 꽂았다.
반면 광주는 후반 12분 엄원상이 김원식의 패스를 받아 오른쪽으로 울산의 골키퍼를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 킥이 먼저 올라 동점골 기회를 날리고 3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한편, 한국프로축구는 지난 18일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K리그1 30라운드 경기의 결과를 1-1 무승부에서 광주의 0-3 패배로 정정했다. /최진화 기자



만루홈런의 기쁨 2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KIA 타이거즈 경기. KIA 5회말 2사 만루에서 5번타자 김태진이 만루홈런을 때린 뒤 홈인하며 김선빈의 환영을 받고 있다. KIA가 6-5로 이겼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핸드볼 아시아선수권 '5연패'

일본과 결승서 33-24 완승
세계선수권 출전 자격 획득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아시아선수권 5연패를 달성했다.
한국은 26일(한국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여자핸드볼 선수권 대회 마지막 날 일본과 결승에서 33-24로 이겼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2년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5회 연속아시아선수권 정상을 지키며 아시아 최강의 자리를 재확인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아시아선수권에서 5회 연속 우승한 것은 1987년 1회 대회부터 2000년 8연패를 달성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18차례 아시아선수권 가운데 15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이날 전반 종료 8분여를 남겼을 때까지 11-12로 끌려가며 고전했다. 그러나 이후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승부를 뒤집어 전반을 18-14로 앞선 가운데 마쳤다.
후반 들어서도 한국은 점수 차를 더욱 벌리며 일본과 상대 전적 16연승의 절대 우위를 이어갔다.
한국은 2010년 아시아선수권 22-22 무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26일(한국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승부 이후 일본과 16차례 만나 16번 모두 이겼다.
올해 도쿄올림픽 조별리그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27-24로 물리쳤고, 여자 핸드볼 한일전 통산 전적은 28승 1무 3패로 우리나라가 압도하고 있다.
한국은 이날 정유라(대구시청)가 혼자 11골을 넣었고, 김진이(부산시청)도 4골을 보탤었다. 또 골키퍼 정진희(한국체대)는 세이브 8개로 방어율 42.1%를 기록

하며 골문을 지켰다.
또 이 대회에 출전한 박현진, 김원정 심판 커플은 최우수심판으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정상에 올라 올해 12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이 대회 상위 5개 나라가 올해 세계선수권에 나간다. 한국과 일본, 카자흐스탄, 이란, 우즈베키스탄이 스페인 세계선수권에 아시아 대표로 출전한다. /연합뉴스